

“목포에서 부산까지 남해안권 간선철도망 완성” 27일부터 보성~목포 철도 개통!

- 26일 개통식... 목포에서 보성까지 65분, 부전까지 4시간40분 소요

- 전남 서남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‘보성~목포 철도’가 개통하면서, 서해안과 동해안 권역에 이어 남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드디어 완성된다.
 - ‘보성~목포 철도건설사업’은 신보성역과 목포 임성리역을 잇는 82.5km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, 총사업비 1조 6,459억 원을 투입했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9월 26일(금) 오전 11시 신보성역에서 ‘보성~목포 철도 개통식’을 개최하고, 9월 27일(토)부터 본격 운행에 나선다.
 - 개통식에는 국토교통부 강희엽 제2차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지자체장, 문금주 국회의원, 국가철도공단, 한국철도공사, 건설사업 관계자 및 주민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.
 - 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목포역↔신보성역 구간 열차 시승도 진행한다.
- 이번에 개통하는 보성~목포 철도사업(이하 “목포보성선”)을 통해 신보성역, 장동역, 전남장흥역, 강진역, 해남역, 영암역 총 6개 철도 역사가 신설됐다.



△ 신보성역(보성군)



△ 장동역(장흥군)



△ 전남장흥역(장흥군)



△ 강진역(강진군)



△ 해남역(해남군)



△ 영암역(영암군)

- 6개 철도 역사는 지역 대표 상징물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설계돼 지역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.
- 신보성역은 녹차밭의 고랑을, 장동역은 주변 신배산을, 전남장흥역은 키조개를, 강진역은 청자 가마를, 해남역은 고인돌을, 영암역은 월출산 봉우리를 형상화했다.
- 목포보성선에는 보성~순천 구간이 현재 비전철 구간임을 고려하여 목포에서 부산까지 열차 운행을 위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를 투입한다.
- 목포~부전(부산) 구간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하루 총 4회(새마을호 2회, 무궁화호 2회), 목포~순천 구간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하루 총 8회(새마을호 2회, 무궁화호 6회) 운행한다.
- 새마을호 열차 기준으로 목포~부전(부산) 운행 시간은 약 4시간 40분으로, 기존 광주송정역을 거쳐 운행하는 경로(약 6시간 50분) 대비 2시간 이상 단축된다. 또한, 목포~보성(신보성역) 간 운행 시간도 약 65분으로 기존 경로(150분 소요) 대비 85분 단축된다.
- * (기존 경로/무궁화호) 목포역 → 광주송정역 → 부전역: 약 388km, 약 6시간 50분
목포역 → 광주송정역 → 보성역: 약 135km, 약 2시간 30분
- 향후 2030년경 광주송정~순천(광주송정~보성~순천) 전철화 사업이 완공하면 목포부터 부산까지 KTX-이음을 투입할 예정이다.
- 한편, 남도해양 관광열차(S-train)의 경우, 목포보성선 신규노선을 활용하여 ‘광주송정 ~ 부산’에서 ‘목포 ~ 부산’으로 운행 경로를 변경하는 한편, 운행 횟수도 주 2회(토·일, 하루 2회)에서 주 3회(금·토·일, 하루 2회)로 늘린다.



△ 남도해양 관광열차(S-train)

□ 특히, 목포 임성리역과 영암역 사이에 위치한 영산강교에는 국내 철도교량 최초로 9경간 연속 엑스트라도즈드 방식*의 특수 교량공법이 적용됐다.



○ 영산호 주변 산세와 영산강의 돛단배를 형상화했으며, 총 연장 675m, 주경간이 100m 이상인 장대 특수교량이다.

* (Extradosed 형식) 콘크리트 주탑에 케이블을 연결하여 하중을 콘크리트 거더뿐만 아니라 케이블에 분담시킴으로써 교량 경간의 장대화 가능

□ 목포보성선 개통은 전남지역 간선철도망 확충뿐만 아니라 남도 관광 루트 구축과 전남 지역 관광산업의 지형 변화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.

○ 영암, 해남, 강진, 장흥 등 지역은 철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남도해양 관광열차(S-train) 운행 횟수도 증가하면서, 남도의 맛과 멋을 접할 기회가 확대되어 체류형 관광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사진출처 : 한국관광공사, 지자체 홈페이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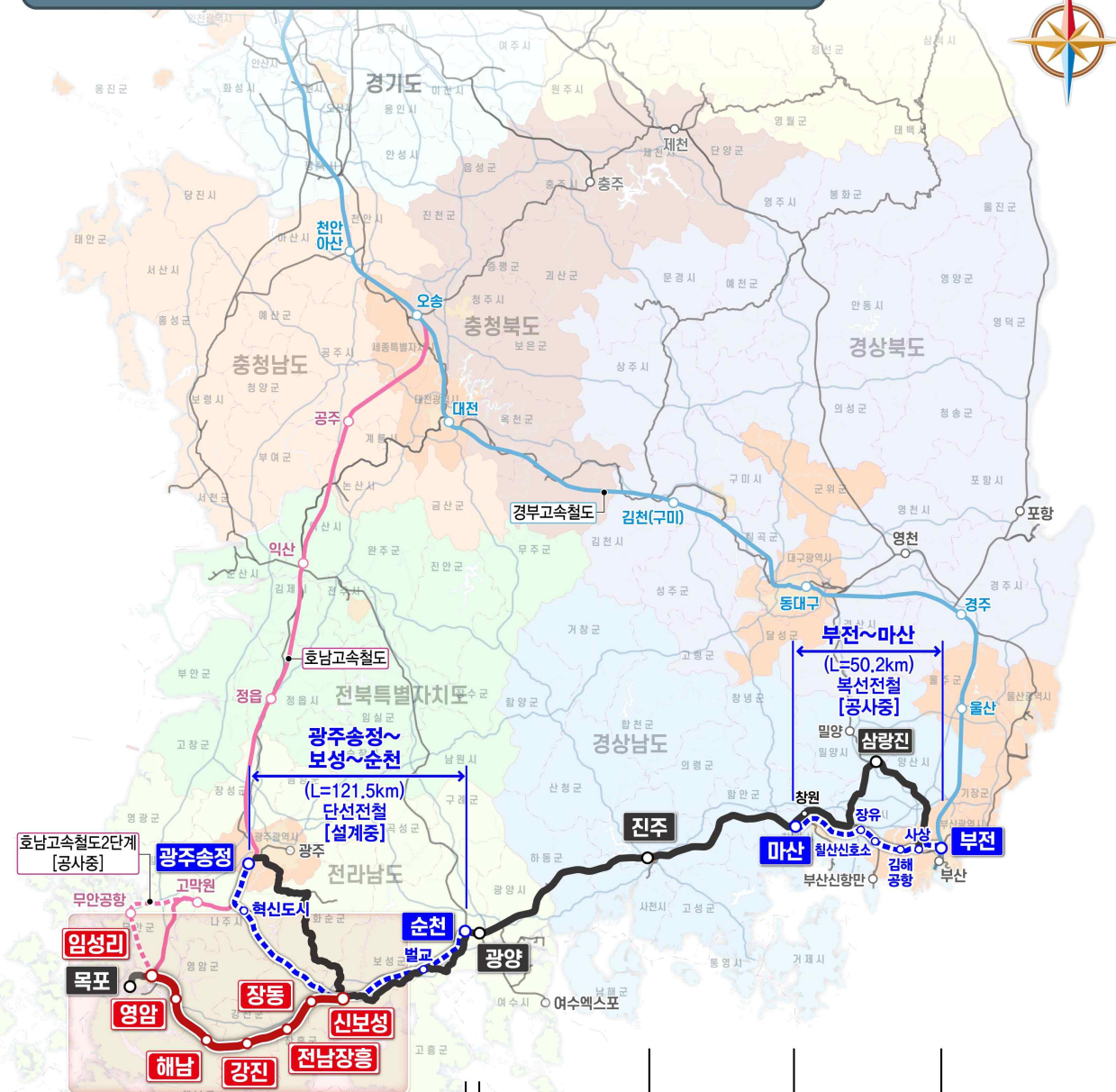
-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“목포보성선 개통은 지역상생과 국토 균형성장의 미래를 밝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”라면서,
- “부전~마산 복선전철, 광주송정~순천 전철화사업도 조속히 개통하여, 남해안 전역을 하나의 생활·관광권으로 연결하고 목포부터 부산까지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국토교통부	철도국 철도건설과 (철도건설사업 및 개통식)	책임자	과 장	허경민 (044-201-4166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환 (044-201-3951)
			사무관	이동호 (044-201-3952)
			주무관	윤영대 (044-201-3962)
	철도국 철도운영과 (열차 운행계획)	책임자	과 장	강욱 (044-201-3970)
		담당자	서기관	임상준 (044-201-4631)
	주무관		김은경 (044-201-3974)	
국가철도공단	호남본부 궤도토목부 (철도건설사업)	책임자	부 장	황경미 (062-602-5331)
		담당자	과 장	이기훈 (062-602-5334)
			과 장	윤경훈 (062-602-5332)
한국철도공사	고객마케팅단 여객마케팅처 (열차 운행계획)	책임자	처 장	이승복 (042-615-3956)
		담당자	차 장	김환철 (042-615-3967)

참고 1

보성~목포 철도사업 노선도

▶ 보성~목포 임성리 철도사업 개통 노선도



범례

- 공사중
- 운영중
- 개통예정

참고 2

보성~목포 철도사업 신규 역사 조감도



- 역사명/시기 : 신보성역(보성군)
- 규모 : 지상 2층, 연면적 1,995m²
- 컨셉 : 커커이 반복되는 보성 차밭의 고랑을 레이어화하여 입면에 형상화



- 역사명/시기 : 장동역(장흥군)
- 규모 : 지상 2층, 연면적 720m²
- 컨셉 : 주변 배산천과 신배산의 선형을 적용하고, 구석기 유적을 입면요소로 활용



- 역사명/시기 : 전남장흥역(장흥군)
- 규모 : 지상 2층, 연면적 1,211m²
- 컨셉 : 장흥의 풍부한 갯벌지대에서 서식하는 키조개를 형상화



- 역사명/시기 : 강진역(강진군)
- 규모 : 지상 2층, 연면적 2,122m²
- 컨셉 : 강진의 청자 가마의 조형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도록 현대적으로 재구성



- 역사명/시기 : 해남역(해남군)
- 규모 : 지상 2층, 연면적 1,306m²
- 컨셉 : 해남 지역에서 출토된 선사시대 고인돌을 형상화



- 역사명/시기 : 영암역(영암군)
- 규모 : 지상 2층, 연면적 1,982m²
- 컨셉 : 영암 지역에 위치한 월출산 봉우리를 형상화